

지역 소식통

조상중 정읍시의회 의장
미안마 민주화 회복 응원

정읍시의회 조상중 의장은 지난 23일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장의 지목을 받아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 응원 챌린지에 참여하여 미안마 민주주의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군부에 맞서는 미안마 국민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지지하기 위해서 챌린지에 참여한 조상중 의장은 "미안마처럼 과거에 아픈 역사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부 쿠데타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저항으로 맞서고 있는 미안마 국민을 지지하며, 또한 그들의 투쟁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다음 참여자로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장을 지목했다.

한편, 정읍시의회는 지난 19일 제26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미안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회복 촉구 결의문(이남희의원 대표 발의)을 채택하여 관계부처로 발송한 바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 농어촌공공, 영농대비
배수개선사업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부안지사(지사장 신진균)는 부안군 침수 침수지역의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하여 농립축산식품부로부터 준설공사비 5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배수불량으로 인한 영농불편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영농기 전에 배수로의 퇴적토 준설 및 수초제거를 시행하는 사업이며, 올해 초 사업대상지로 조사한 부안군 일대(백산면, 계화면, 주산면 등) 22노선 L= 27km에 걸쳐 시행할 계획으로 21년 5월말까지 사업비를 집행할 계획이다.

부안지사는 1만2,248ha의 수해면적과 21개 저수지, 82개 양배수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직원이 사전 영농대비 수리시설물 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다해 지역 농업인과 함께하는 물관리 전문가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갈 방침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 천일염 경쟁력 강화

유기상 군수, 심원면·해리면 염전 가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점검

청정한 햇빛과 바람, 갯벌이 있는 곳에서만 탄생하는 명품 소금. 전북 고창군이 천일염과 염전을 활용한 6차 산업화 모델 구축에 나섰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최근 고창군 바닷가 마을인 심원면과 해리면을 찾아 '천일염 가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

고창갯벌 천일염은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로, 람사르습지로 등록된 자연 그대로의 살아 숨쉬는 청정 갯벌염전에서 만들어진 명품 소금이다. 유 군수는 취임 직후부터 '고창 천일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실제 고창군 해리농협은 자체브랜드인 '천일금' 천일염으로 국내 양념류 시장에서 호평을 얻으며 미국 수출도 성공했다. 군도 고창소금전시장(선운산도립공원 관광단지 내) 민간위탁을 통해 고창소금알리기와 관광객 만족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방대한 심원 염전부지(216만2925㎡)를 활용한 6차 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해 주목받고 있다. 말대나 수차 등을 활용해 천일염의 생산 과정을 직접 경험해볼 수 있으며, 이렇게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군 바닷가 마을인 심원면과 해리면을 찾아 '천일염 가공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을 점검했다.

만든 소금으로 음식이나 공예품 만들기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다.

향후 해수 풀장, 찜질방, 소금박물관 등 다양한 체험·관광시설을 마련해 갯벌과 연계된 국내 최고의 해양생태 체험 학습장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염전은 자연과 삶이 어우러진 생명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면서 "자연에 거스리지 않고 오직 땅의 노력만으로 천일염을 거두는 소금장인의 열정에 지역의 생태문화 관광 자원이 결합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장, 택시업계 관계자와 시정발전 간담회

정읍역 택시승강장 설치 등 9건 해결방안 마련

유진섭 정읍시장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유 시장은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개인택시 단위조합(문석준 조합장)과 개인택시연합회(김영권 회장), 법인택시협의회(김정길 회장)와 시정발전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승객이 급감하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택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택시 업계 관계자들은 택시승강장 설치와 과속방지턱 조정, 정읍역 택시승강장 화장실 이용 불편 해소 등 15건의 건의 사항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9건에 대해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3건에 대해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정읍역 화장실 설치 건은 내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정읍역 컨퍼런스센터에 반영해 애로사항을 해결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7기 시정 핵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시정 운영 방향도 설명했다.

유 시장은 △용산호 주변 관광 활성화 △내장산 자연휴양림 △정향누리 향기공화국 △내장산 문화관광 유원 시설 △연수원 유치 △정읍사공원 및 아양산 주변 개발 △쌍화차 및 주향특화거리 조성 △동화농민혁명계승 사업 △체육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우체국, 2020년 우정사업 경영평가 전북1위

부안우체국(국장 신성호)이 2020년도 전북지방우정청 소속기관 우정사업 경영평가에서 1등급 달성으로 전북 1위 평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부안우체국은 우편매출액, 우편비용, 예금수익성, 정산조회보합실적 등 모든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으며, 고객만족분야에서 개선도 1위, 집배원 안

전사고 무사고 실현 등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경영평가 1등급 우수한 성적을 달성했다.

특히 전직원이 2020년 경영슬로건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영, 노·사 공감·소통 및 행복한 조직문화를 위한 소통경영, 소포내실화·창구망 합리화 등 혁신경영, 안전

사고·금융사고예방 등 클린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합심 노력한 결과이다. 신성호 국장은 "부안우체국이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우체국을 믿고 이용해 주신 모든 고객 덕분"이라며 "2021년 경영슬로건을 '고객감동·직원행복·아침에 출근하고 싶은 부안우체국'으로 정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화이자 백신 모의훈련 실시

정읍시, 4월부터 75세 이상 접종, 예진표 작성·문진 등 점검

정읍시가 안전하고 차질 없는 완벽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체계를 구축하고, 고령층 어르신들의 안전한 백신 접종을 위한 막바지 점검을 마쳤다.

시는 7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24일 지역예방접종센터가 설치된 정읍체육관에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4월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되는 것에 대비, 준비부터 이상 반응 모니터링까지 예방접종 모든 과정을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날 훈련에는 시 보건당국 공무원을 비롯해 소방서와 육군, 경찰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훈련은 실제와 같은 예방접종 상황을 가정해 대상자 체크부터 예진표 작성과 문진, 접종, 이상 반응 관찰까지 단계별 소요 시간을 측정했다.

특히 백신 접종 후 알레르기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이송조치 등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점검했다.

시는 이날 훈련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신속히 보완해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예방접종센터인 정읍체육관에서 2분기 접종을 시작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모의훈련을 통해 화이자 백신 접종이 안전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께서도 건강한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까지 정읍시 백신 접종자는 1분기 접종대상자 65세 미만 1,597명 중 1,429명이 접종해 89.5%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다.

신고원 이상 반응은 총 17건으로 모두 경증이며 중증 이상 반응 사례는 없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 홍보대사 위촉

정읍시가 트로트 신동 방서희 양을 정읍시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시는 인기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며 대중적으로 인지도와 신뢰도가 높은 방서희 양을 홍보대사로 위촉해 지역 이미지를 고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 23일 방서희 양과 부모(아버지 방승환, 어머니 김종숙), 유진섭 시장, 김재오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열고 방서희 양에게 위촉패를 전달했다. 방서희 양은 정읍시 용동면 '용동청결방앗간' 집 외동딸로 어려서 때부터 트로트로 온 동네를 울리고 웃기며 유명세를 떨쳐왔다.

2018년 '전국노래자랑 정읍시' 편에서 MC 송해 선생과 듀엣곡으로 '아버지와 딸'을 불러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히며 인기를 받기도 했다.

또, KBS '노래가 좋아'에서 우승하고, 각종 트롯 경연대회에서 상을 휩쓸었으며, '6시 내고향'과 SBS '세상에 이런 일이' 등 다양한 방송에서 매

력을 뽐내고 있다. 최근에는 유명 방송프로그램인 MBN '보이스 트롯'에서 트로트 신동으로 기량을 마음껏 펼쳐며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활동하고 있다.

방서희 양은 앞으로 2년간 정읍시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지역의 풍성한 역사와 먹거리 등 다양한 매력을 전파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이어지고 있는 트로트 열풍에 맞춰 각종 지역 행사와 방송 등을 담당하는 적극적인 활동으로 시의 브랜드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방서희 양은 "정읍시 홍보대사가 되어 너무 기쁘다"면서 "우리 고향 정읍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 홍보대사 활동을 통해 밝고 순수한 에너지를 전파해 더불어 행복한 정읍시를 만들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